

“날짜 물은후 禪床에 올라...”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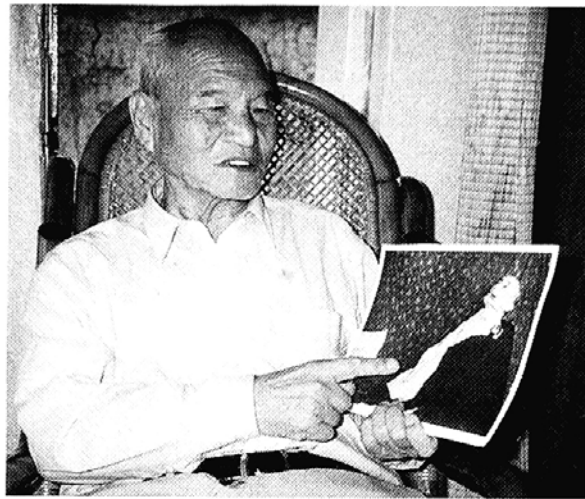
한암스님 좌탈입망 <촬영 김현기스님>

20세기가 저물어간다. 민족사의 집국만공이나 부침을 거뒀던 한국불교계의 지난 20세기, 교계의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 그 현장 그 인물을 다시 조명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5주년에 맞춰 20세기 불교의 한 단면을 점검하는 이 기획은 연말까지 연재되면서 당시 가려진 이야기 다 못 드러낸 일화들을 짚어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다. <편집자 주>

로는 국군 작전지역으로 월정사와 상원사를 포함한 모든 사암과 민가들이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모두 2개월여전 피난을 떠났다. 오직 군작전상 소각하기로 되었던 상원사를 단신으로 지켜낸 한암스님만이 상원사에 2명의 사미와

지시했다. 그러나 빛이 적어 사진을 찍을 수 없자 스님을 열반자서 그대로 앉아 안방으로 모셨다. 너무나 가벼웠다. 그리고는 대청문을 활짝 열었다. 빛도 밝지만, 도인의 열반상을 천지만물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20세기 유일하게 좌탈입망의 순간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남겨진 것이다.

“당시 직무상 늘 사진사를 대동하고 보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프를 타고 상원사 아래를 지나는데 상원사 사미승이



◊당시 강릉 8사단 정훈부대 장교였던 김현기스님은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장면을 사진사에게 촬영토록 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현기스님이 한암스님 열반사진을 보이며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6·25때 텅빈 오대산 지키다 열반 정훈장교 현기스님 촬영 3일후 다비

죽음이 범부중생에게 가장 큰 공포와 괴로움이 되는 만큼 고승들의 마지막의 순간이 어땠는가는 불자들의 큰 관심이 되어왔다. 거꾸로 서서 입적했다는 당나라 등불선사, 관세 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서서 열반했고, 보조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그대로 입적했다고 한다. 구전이 아니라 실제 사진으로 전해오는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모습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5전쟁중 오대산 100리 안쪽으

공양주보살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1951년 3월22일 가벼운 병에 걸린 한암스님은 시자에게 물었다.

“오늘이 음력으로 2월14일이지?” 라고 말한 후 가사와 장삼을 입고 청량원 선상(禪床)위에 단정히 앉아서 열반에 들었다. 근세 고승으로 유일하게 좌탈입망(坐脫立亡)한 것이다.

이 순간 강릉8사단 정훈부대 장교이자 육군소위로 복무중인 당시 35세의 김현기스님(현재 83세·원효정사 주지)이 지프로 사진사와 함께 도착했다. 그리고는 사진사에 게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토록

황망히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그래 물었더니 한암스님께서 편향으로서 약을 구하러 간다는데 말이 됩니까. 전쟁중인데 불가능하지요. 그저 가만히 있을수 없으니 무작정 나선거라 싶었고 나는 그걸로 상원사로 갔던 거지요.”

현재 경산 자인면 우체국 뒤 원효정사에서 주석하고 있는 김현기스님은 만공·용성스님과 함께 당대에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던 한암스님의 마지막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복(福)이라고 표현했다. “한암스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참선삼매에 든 채 계셨던 것입니다.

좌탈입망이란 것이 참아서 되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 3일 뒤 군인 30여명을 차출해 인근 소나무를 베고 지프에서 기를 베고 불로 한암스님을 다비했다. 그리고 49세때는 열반모습을 사진으로 모셨다고 한다.

19세에 서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선방에서 한철 안거 끝에 조실 금포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현기스님은 교학을 배우고자 사숙사로 갔고, 거기서 1년동안 월산스님(前 불국사조실)과 채공 공양주를 살았고 다시 만공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는 마곡사로 시봉으로 따라갔다.

마곡사 강원에서 고승스님(현 파계사 조실)과 함께 수학했고, 이어 안변 석왕사에서 대교를 마쳤다. 그후 일본으로 건너가 3년만에 임재학원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귀국과 함께 대각사와 선학원에서 머물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육사교수를 역임했고, 33년간 경북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육계에 헌신했다.

원효정사에는 현기스님이 체철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 비석과 주련에 글귀로 새겨져 빛을 발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opia.com)

원주불청 18년째 교양대 운영

지역불심 일구는 ‘청보리’

졸업생 7천여명 신행단체 이끌어

부처님의 진리를 잘 받들어 신앙·전법·포교의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청보리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원주불교 청년회(회장 원건상·오복떡집 대표). 오는 11월 창립 20주년을 맞는 원주불교청년회는 불교의 사각지대인 원주지역에 보리의 싹을 틔우기 위해 18년 전부터 매년 단기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친목, 신행, 봉사 등의 활동을 주로 하는 여는 청년회는 달리 원주불교청년회는 지역불교활성화란 대의를 표방하면서 묵묵히 황소결을 걸어 왔다. 이같은 청보리들의 인력이 새 천년을 앞두고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다.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한 불자들이 원주지역 불교를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한 불자들이 성불원 성불회, 시창법우회, 여성불교회, 한국통신불교회, 정각회 등 8곳의 신행단체를 창립한 것은 물론 원주지역 사찰 및 직장지는 신행단체를 이끄는 선봉자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수한 불자들이 청년에서부터 노보살까지 7천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불교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원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주불교청년회 불교교양대학은 지역 불교활성화 및 신행활동을 위한 모태로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주불교청년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법운사 대적광전에서 제18기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불교교양대학에서는 성전암 철옹스님의 ‘무한성의 구원’, 자광스님의 ‘하나인 세계’, 현진스님의 ‘깨달음의 길’, 도산스님의 ‘잔불가를 통한 포교의 방향제시’, 최봉수교수의 ‘근본불교에서 본 불교의 정체성’ 등의 강의를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원주불교청년회 원진상회장은 “불교교양대학을 통하여 청·장년층 포교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 불자님 및 회원들의 발심교양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역불교활성화와 높은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학교에 나뉜 진신사리탑

능인종고 제막식

불사리 15과 봉안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는 9월 28일 오전10시 본관앞 뜰에서 부처님진신사리 3층석탑(사진)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사리탑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정년퇴임한 이규곤교장과 집현호행정실장이 3년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 능인학원

개교60주년을 맞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탑은 기단부를 포함, 총7.42m높이의 3층석탑으로 탑신에는 능인학원이사장 근일스님이 인도수상으로부터 기증받은 불사리15과가 가로5cm 세로 4cm 높이5cm의 은으로 된 사리함에 넣어져 봉안됐다. 근일스님은 “건학이념을 좇아 건립한 진신사리 3층석탑을 불매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길을 생 각하자”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동양최대 아미타불 건립

충화중 흥천 연화사에...높이 36m

흥천 연화사(주지 화담)는 1일 동양 최대 아미타대불(높이 36m) 점안봉납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흥화중 종정 동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번에 봉안된 아미타대불의 몸은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

도를 친견할 수 있으며 1층에는 열 두 부처님이 탱화로 조성돼 있다. 이날 주지 화담스님은 인사말에서 “날로 효를 잃어가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에게 효사상과 부처님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을 청소년 수련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부산 양정청소년회관 청소년 소극장 개실

사단법인 불국토가 운영하는 양정 청소년회관(관장 범선)에 청소년 전용 영상관 양정청소년소극장이 개장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개장한 양정청소년소극장은 청소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지연 2억원을 투입하여 회관내 7층 전층을 활용해 꾸며졌다. 168평 규모에 230석의 시사실인 시네마홀, 영상전실, 녹음실, 분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양정청소년회관 소극장은 영상물을 통한 사회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테마영화 상영회, 영상창작경진 등 다양한 행사들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관전은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규모 총면적 250평이다. 문의 0346) 574-5585.

사명대사 389주기 추모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5일 초을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호국경신 계승 사명대사 열반 389주기 추모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등 4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육법공양, 차공양, 영상제와 사명대사 행장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인사 자광전 개원 법정스님 초청 법문

남양주 부인사(주지 적경)는 24일 오전 10시 법정스님 초청 자광전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세계유일의 불교종합 월간지

불교저널

10월호 발간

이외 불교 특집

●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 속보 태국 불교

● 믿음과 돈 모으기 사이에서

● “나는 결코 법복을 벗지 않겠다”

● 신진교단에 정부철퇴

● 일본불교/일련정종에 부는 검은 바람

● 나카다 미쓰히코

대담 재가불교와 신도교육

목혜 VS 경기

나쁜 연기를 조작하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 의다나베 유우지

시사칼럼 이런 사람이 보살이다 윤정광

참선여행기 송광암 3박 4일 여름수련회 김창현

스승에한

원심, 광덕심 혜담

신의 개성들

주주의 평생심 박경훈

만화

신의 사상 채지충

투고를 기다립니다

월간 「불교저널」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불교종합잡지입니다.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시, 소설, 수필, 동화 등 불교문학작품
2. 불교시사논문,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3.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루는 글
4. 율바른 신행을 계도하는 글
5. 스승에한,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6.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재가신행단체의 활동상 등 재가불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7.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 평평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량과 주 소 권록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 드립니다.

보내실 곳: 월간 불교저널사
100-380 서울시 중구 명동동 23-1
신현빌딩
TEL: (02)2285-2421/2
FAX: (02)2285-2420

이외 불교 특집

●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 속보 태국 불교

● 믿음과 돈 모으기 사이에서

● “나는 결코 법복을 벗지 않겠다”

● 신진교단에 정부철퇴

● 일본불교/일련정종에 부는 검은 바람

● 나카다 미쓰히코

월간 불교저널 특집

●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 속보 태국 불교

● 믿음과 돈 모으기 사이에서

● “나는 결코 법복을 벗지 않겠다”

● 신진교단에 정부철퇴

● 일본불교/일련정종에 부는 검은 바람

● 나카다 미쓰히코

월간 불교저널 특집

●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 속보 태국 불교

● 믿음과 돈 모으기 사이에서

● “나는 결코 법복을 벗지 않겠다”

● 신진교단에 정부철퇴

● 일본불교/일련정종에 부는 검은 바람

● 나카다 미쓰히코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btn)이 위태롭다. 그러나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btn의 설립배경과 운영과정,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았다.

제언 미래의 한국불교에 바란다

상구보리, 하회종생이 균형 이루어 윤원철

사부대중의 불교로 거듭나자 공종원

군포교 21세기 군포교의 나아갈 방향 최영준

선사연구

금오 대선사의 생애와 가르침

세계문화 유산속의 불교유적

불가사의한 석조건축, 자비의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배기동

명성이 명망이다

데니스 코메이

불교저널

창간하는 불교텔레비전

신구판 / 240쪽 / 가격 7,000원 (1년 정기구독료 70,000원)

구독신청 전화 (02)2285-2421~2 팩스 (02)2285-2420